

◎ 政 府 民官協力으로 國際化 推進

박 영 기

〈商工資源部 貿易政策課長〉

1. 서 론

최근 국제무역환경은 '90년대 들어 냉전체제가 와 해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7년여를 끌어 온 UR협상이 작년말 타결됨으로써 자유무역 질서 형성을 위한 일각이 구축되었는가 하면 EC, NAFTA 등 보호주의적인 지역주의도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국가간의 울타리는 더욱 낮아지고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은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해 온 우리경제 및 기업의 구조, 행태를 질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와 같은 세계사적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동인과정책과제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무역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책이 어떠한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제무역질서의 재편, 실물적인 측면에서 시장 및 경쟁구조의 변화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양자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

1) 국제무역질서의 재편

(1) UR협상 타결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우선 작년 12월, UR협상이 전격 타결됨으로써 세계경제는 당분간 다자체제 자유무역질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UR협상에서는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30% 이상 대폭 인하되었을 뿐 아니라 규율대상도 종전의 공산품 위주에서 선진국이 다소 경쟁력이 강한 농산물, 서비스 분야까지 확장되었다. 또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각 분야에 걸쳐 국제무역규범이 새로이 만들어짐으로써 그간 수차례에 걸친 GATT의 어느 라운드보다도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이 설립되는 WTO(세계무역기구)는 종전의 GATT 체제보다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의 일반적인 반덤핑 등 무역제재 조치는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세계경제의 불확화 추세의 심화

다자간의 자유교역질서 확립을 위한 UR협상과는 달리 인접국가간의 경제적 결속을 도모하는 지역주의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93년 통합을 이룩한 EC는 금년초부터 EFTA 5개국을 포함한 유럽경제지역(EEA)로 확장되었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를 연결하는 NAFTA도 중남미국가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의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자유무역

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보완효과보다 자국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대체효과가 더 크다는 생각에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가 계속 확산될 경우 배타적인 성향으로 UR체제와의 구조적인 마찰이 예상된다. 향후, UR체제하에서도 모든 국가의 경제적 이해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더욱 확산되리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앞으로의 경제적인 관계는 국가간의 교역보다 블럭간의 교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3) 환경문제의 본격 등장

UR협상에 이어 “제3의 이데올로기”라 불리는 그린라운드(GR)가 세계교역질서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들은 UR을 통한 시장개방이후에 환경규제를 통해 국제교역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신설하여 환경과 무역문제를 다루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현재 전세계에 발효된 160개 각종 환경협약중 10.6%인 17개 협약만이 무역규제조항을 두고 있으나, 향후 3년 이내에 절반이상이 규제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보여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2) 세계시장 및 경쟁구조의 변화

(1) 기술중심의 경쟁시대 도래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기술적 진보는 전체 생산량증가의 2/3를 차지하였다는 최근의 분석자료가 나왔듯이 이제 국제경쟁은 자원, 노동력 등 전통적인 요인보다는 기술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본, 입지 등 생산요소의 국제간 이동이 가속화 되면서 오직 기술만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 소비패턴의 다양화

물질적 풍요를 어느정도 달성한 후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서 각 개인의 정신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요패턴이 보다 다양화·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그간 대량생산체제에 의존해 온 생산방식의 혁

명을 촉발시키고 있다. 종전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정보화·자동화 등을 통한 다품종 소량의 유연생산체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단축되고 신제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3.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면

(1) 전반적인 대외시장여건의 호전

세계경제의 개방체제로의 진입은 그간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구사해 왔고 대외의존도가 50%가 넘는 우리경제 여건하에서도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특히, UR협상 타결로 세계경기가 보다 가속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세계적인 경제연구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

GATT사무국은 UR타결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UR협정 발효후 10년이 되는 2005년에 '91년 가격기준으로 7,500억달러의 교역증대와 함께 2,300억달러의 소득증대가 있을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여건의 호전은 그간 '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인 세계경기 불황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술패권주의가 심화되고, 선진국은 범국가적으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개발된 기술의 배타적인 독점을 위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일부 한정된 선진국가간의 기술공유 및 전략적 제휴 등으로 인해 개도국의 선진기술에의 접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 기업활동의 국제화 추구

국경의 울타리가 점차 낮아지면서 세계경제의 단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기업활동도 생산·입지·판매 등에 있어 최적이윤확보를 위한 지구기업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각국의 무역규제를 우회하여 다양화되는 현지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제품의 개발, 생산, 마케팅 등 제반 경영기능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지름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국내의 기업간, 심지어 경쟁기업과도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무역거래도 전통적인 상품교역보다는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3) 경제의 서비스화 촉진

정보산업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생산활동보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판매, 유통, 금융 등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교역측면에서는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상품보다는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교역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일본 등 주요선진국에 있어서도 물질적 산업구조에서 기술적 산업구조로 이행해가고 있다.

(4) 경제구조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

UR협상 결과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이 개방되는 농업,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우위에 있는 수출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산업구조 개선을 꾀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실질적인 측면 이외에 국제적인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의 의식관행, 각종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경제의 국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부정적인 면

(1) 치열한 경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해 국가간·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우리경제가 수년내 자체 기술력 등 확실한 경쟁우위요소를 갖지 못할 경우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NAFTA, EC 등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시장진출 전략으로는 지속적인 수출증대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특히 미국, 일본 등 경제대국의 경제여건변화가 국내경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소규모 개방경제구조

를 가진 우리경제로서는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운용이 더욱 제약될 수 있다.

(2) 수출 및 산업지원제도의 축소

UR협상 이후에는 무역왜곡의 효과를 가져오는 보조금 지원이 엄격히 규제됨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국내수출 및 산업지원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아직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가 많은 국내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특히 수출산업에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3)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증가 우려

전산업에 걸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로 인해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중·저가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경공업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가 본격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이들 분야의 구조개선이 없이는 산업피해와 함께 실업 등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4. 정부의 정책방향

1) 기본방향

이와같이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발전원동력과 정책적 과제가 요청된다.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밝혔듯이 민주화, 개방화 시대에 맞게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원동력으로 삼아 대외지향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근 수년간 경제운용의 경험에서 보듯이 내수위주의 성장은 결국 인플레이 기대심리를 확산시켜 성장잠재력의 잠식으로 이어지므로 우리경제의 돌파구는 대외거래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전략을 토대로 안으로는 민관의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외경쟁에서의 우위를 창출해 나가고, 밖으로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낙오되지 않도록 국제화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경제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국제경쟁력의 강화

과거 동서냉전시대에 있어 한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력을 포함하였으나 탈냉전시대의 국력은 바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산업의 구조조정과 정치적 과도가 중첩되면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쟁력의 원천이 현저히 고갈되고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은 15개 신흥공업국중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가 '92년 5위에서 '93년 6위로 계속 밀려나고 있으며, 특히 기술력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기업경영여건인 자본·인력·SOC도 경쟁국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경영혁신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기본적인 생산요소가 원활히 공급되어 생산에 있어 고비용구조가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우선, 정부에서는 기업이 값싼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 개혁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앞당겨 기업의 해외금융조달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코스트를 낮추어 나가고, 21세기 인적자본형성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면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력」향상을 위해 과거의 총력수출체제와 같은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금년중에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술개발지원자금을 확충해 나가면서 기술인력 양성, 기술정보망 형성, 기술개발지원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와 아울러 2000년대 우리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첨단기술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장기 첨단분야의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기술용역업, 마케팅서비스업 등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3) 경제의 국제화 추진

국제화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국제수준과 일치해야 하고 관행과 의식이 이를 뒷받침해줄 때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제도 및 관행을 국제규범과 부합하도록 빠른 시일내 개선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UR타결에 따른 후속조치, '96년대 OECD 가입준비를 위해 무역관련절차, 산업지원제도, 투자 및 자본거래 등 관련제도를 국제규범상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이와같은 제도개선 시책과 함께 우리 국민의식도 세계지향적인 마인드로 고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기업경영의 국제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 대외경제정책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수출촉진정책이 주류였으나 지금은 국경선을 넘어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해외투자정책, 생산 및 판매거점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다원화된 다국적기업정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제는 해외투자도 종전의 소극적인 외환관리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무역·산업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시점이 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을 조사·분석한 후 국별·지역별 해외투자 정보 및 비전을 제시하고 해외투자자금 지원, 이중과세 방지 등 국제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전략을 수립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그간 국내의 부를 유출시킨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외국인투자를 통하여 기술잠재력과 수출을 신장시켜 나간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토지, 금융, 노사관계 등 기업관련 경영분야에서의 제약요인을 더욱 완화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보다 많이 유입되도록 할 것이다.

4) 세계 경제질서 형성에의 능동적 참여

이제 국제교역질서는 UR로 대변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인접국가와의 교역자유화를 도모하는 NAFTA, EEA 등의 지역경제체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는 배타적인 지역경제권 형성보다는 UR이라는 다자간 무역체제와 개방적 지역경제협력력을

표방하는 APEC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흐름에 동참하려 하고 있다.

우선, 작년 11월에 개최된 APEC 회의에서 우리는 아·태지역 경제협력증진 여건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바 있으며, 세계경제에서 아·태지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APEC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UR이후 전개될 환경, 경쟁정책 등 새로운 다자간 협상에도 UR협상 경험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투자·기술 등 협력발전관계를 구축해 생산적인 통상관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후발개도국과의 산업협력 진전시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5.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기업이다. 지난 30년간 우리경제의 성장을 선도해 온 것도 창조적인 기업정신에 힘 입은 바 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자기혁신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1) 동태적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전략 수립 필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발전단계와 여건변화에 따라 동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수요의 개성화·다양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 방식을 유연생산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생산 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도 고객제일주의 이념이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경영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효율화 함으로써 미래 기대수익의 원천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일수록, 예컨대 지멘스나 후지쯔의 경우 매출액의 10%이상을 연구개발에 계속 투입하고 있음은 한번 음미해 볼만하다고 하겠다.

2) 기업활동의 국제화 및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

이제 국제화,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므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기업을 국제화 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경영의 현지화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지역블럭화, 기술보호주의 등이 더욱 확산되면서 현지시장 확보 또는 해외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범세계적인 관점에서의 투자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해외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은 기술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이미지로 인하여 실제 가치보다 평가절하되어 팔리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과 같은 OEM방식에 의존한 상품전략은 이제 선진국 시장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이미지 관리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인력 못지 않게 마케팅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3) 기업간 협조강화를 통한 산업기반의 강화

기업경쟁력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시장조직에서 국내기업간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동종의 기업간은 품질, 가격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공동기술개발, 부품의 상호구매 등 상호보완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대기업은 세계적인 유수기업과 비교하면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공히 소기업에 불과하므로 제한된 경영자원을 전문화된 분야에 집중투입하여 세계적인 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문화 되어야 한다. 또한, 제품 하나를 생산하더라도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므로 그간의 단순한 하청관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술지원, 정보제공, 공동연구 등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하겠다. ▲